

한국 순교 복자  
대축일 미사

기도서 509 면

제1독서 : 마카 하 6, 18, 21, 24-31

제2독서 : 로 마 8, 31b-39

복 음 : 요 한 17, 11b-19

# 순정이

발행처 전주교전주교구  
편집장 홍보국  
인쇄관 리국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0041 · 0042 · 0043

## 교구 신앙대회에 즈음하여

교구장 박정일 주교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0주년을 목전에 두고 복자성월을 보내면서 교구 신앙대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교구 공동체의 해를 보내면서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이와 같은 행사를 가지게 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며 우리 모두가 경축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 이번 신앙대회는 우리에게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20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땅에 구원의 빛이 비치기 시작한 1784년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박해와 모진 시련 속에서 목숨을 걸고 진리를 지키며 믿음을 증거한 순교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그 높은 뜻을 받드는 가운데 오늘의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닥아올 300년대를 설계하자는 것이 200주년을 기념하는 취지라 할 때 오늘 우리는 교구 신앙대회를 통하여 교회 새신을 위한 우리의 믿음과 결의를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복자성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주지방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한국 교회 초창기부터 순교자의 피로써 교회가 성장했기에 순교자들의 후손으로서 그분들의 얼을 이어 받겠다는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셋째, 우리는 교구 공동체의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신앙대회를 통하여 이 지방에서 순교하신 7위 복자를 교구 주보로 선포하는 것은 교구 주보를 모심으로써 우리 모두가 한가족을 이루고 있음을 더 깊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사순절부터 지난 주까지 모든 본당에서 순교자 유해 순회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이 기도회의 깊은 뜻은 우리 모두가 순교자들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가 되고자 하는 열원에서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신앙대회를 통하여 교구 공동체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구 주보로 7위 복자를 모심으로써 그분들을 우리들의 천상 수호자로 우리들의 친구자로 갖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모범을 따름으로 이 지역 안에서 교회의 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이번 신앙대회가 교구 공동체 형성에 큰 도움과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번 신앙대회를 위하여 모든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가 한마음으로 기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주보들께 우리 모두와 교구를 위해 기도해주시길 것을 당부합니다.

끝으로, 이번 신앙대회를 준비하신 모든 분들과 신앙대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 유혹의 손길

순교자들이 죽음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불의(不義)와 타협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도 하나뿐인 목숨은 귀중한 것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그들은 그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불의와 타협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순교의 길을 택한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목숨과 가족, 명예와 재산을 단호히 포기하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는 결단을 내린 것이다. 인간이 인간적인 길을 뛰어 넘었기에 우리는 그들의 용기를 찬양하며 본받고자 하는 것이다.

오늘 이 사회에도 진리에 대해서는 박해의 손길이 넘실대고 있다. 진리와 정의가 무너져야 잇속을 차릴 수 있는 검은 무리의 날렵이 바로 그것이다. 그들은 옮겨사는 길을 가로 막으며 벼슬과 돈으로 유혹을 한다. 때에 따라서는 으름장을 놓기도 하고, 아키노씨 같은 사람에게는 총격의 선물을 안기기도 한다. 마치 도둑놈이 집을 지키는 개에게 맛 있는 먹이를 던져 유혹하거나 독살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 경우에는, 아무리 도둑놈이 사람이라고 해도 개만도 못한 미물임에 틀림없다.)

유혹에는 의례히 타협이라는 허울이 있다. 민주주의를 들먹이며 타협과 양보를 말한다. 하기가 민주적인 생활 태도에도 타협과 양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진리와 정의를 포기하지 않은 범위에서의 타협과 양보를 뜻한다. 유혹하는 손길이 내미는 타협이란 "원칙을 떠나 비원칙적인 것과 타협하는 기회주의적인 경향"인 타협주의를 말한다.

## 순정이 산책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전주교구 후보(主保) 7위복자 약력

김진소 신부(호남교회사 연구소장)

### 복자 조 화서 베드로

그는 구교우 가정 출신으로 기해 박해 때 치명한 조 안드레아를 아버지로, 권 율리안나를 어머니로 하여 1814년 수원 도마지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아버지를 잃은 후 충청도 신창 남방재로 이사하여 한 막달레나와 결혼하였고 1848년 복자 조 윤호를 낳았으나 얼마 후 상처하여 김 수산나와 재혼하였다. 그는 충청도에서 전교하는 신부들의 복사절 마부로 10년간을 활약하였다. 1864년에는 소양면 성지동으로 이사하여 살다가 병인 박해를 당하였다. 병인년 12월 5일 전주 포졸들이 마을에 난입하여 아들 윤호와 이 명서 정 원지와 함께 체포되어 전주 감영으로 압송되었다. 감옥에서는 동료들이 배교하지 않도록 격려하였고 형장에서는 처형자들에게까지 신앙을 권고하는 침착한 여유를 보였다. 그는 1866년 12월 13일 성호를 그어 자세를 갖추고 난 후 52세를 일기로 희광이의 세 번 치는 칼에 참수되었다.

### 복자 조 윤호 요셉

그는 1848년 복자 조 화서와 한 막달레나를 부모로 하여 충청도 신창 남방재에서 태어났다. 그는 아버지를 따라 성지동으로 이사는 뒤 이 루시아와 결혼하여 아버지와 한 집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체포되자 서로 배교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전주로 압송되어 갔다. 그는 심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확고한 신덕을 증거하였다. 그는 자기 보다 먼저 사형장으로 떠나는 아버지에게 신앙을 굳게 지켜 친당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였다. 그 당시 국법이 부자를 한칼에 한장소에서 처형하지 못했기 때문에 5일 후인 12월 18일 서천교 다리 밑에서 죽도록 매를 맞다가 교살 당하니 나이는 19세였다.

### 복자 이 명서 베드로

그는 충청도 태생으로 구교우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는 성품이 어질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으며 슬하에 많은 자녀를 두었다. 그는 구이 고소대에 살다가 체포 당시에는 소양 성지동에서 살고 있었다. 조 화서가 체포되던 날 체포되었지만 그 당시 병중인태다가 많은 가족이 마음에 걸려 애원하여 풀려 났으나 즉시 회개하였다. 그는 문초과정에서 배교를 증용받았으나 그때마다 오히려 수심 번을 고쳐 죽어도 배교할 수 없다고 거부하였고 병약한 몸이 잔인한 고문을 경탄스럽게 극복하였다. 형장으로 가는 날 이 명서는 여러분이 말해온대로 "오늘 우리는 모두 치명을 마치고 바로 천국에 들어 진복자가 될 것입니다. 이 행복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하고 회열에 넘쳐 말했다. 그는 조 화서에 이어 첫번째 칼에 참수되어 46세를 일기로 치명하였다.

### 복자 정 원지 베드로

그는 충청도 진잠에서 태중 교우로 태어났으며, 아버지 정 베드로는 그가 어려서 공주에서 치명하였으며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 형 정 원지에 의존하여 살아왔다. 그는 전주 양량소 놀마루와 금구등에서 살다가 소양 성지동에 와서 결혼하여 지내오던중 조 베드로와 함께 체포되었다. 처음은 공포에 떨려 신자임을 부인했으나 조 베드로의 격려에 힘입어 즉시 회개하고 치명하신 아버지를 따라 치명하기를 다짐하였다. 포졸들은 그를 흉악한 씨에서 나온 놈이라고 더욱 혹독하게 고문하였지만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다. 정 원지는 첫 칼에 참수되어 26세를 일기로 마쳤다.

### 복자 정 문호 발도로메오

그는 충청도 임천 태생으로 그곳에서 입교하였고 지방의 원님을 지낸 경력이 있다. 그는 전라도 여러 곳을 옮겨 살다가 소양 대성동 신리골에 거주하던중 병인 박해를 만났다. 그는 12월 5일 전주 포졸들에게 체포되어 처음에는 배교할 뜻을 비쳤는데 조 화서의 격려로 마음을 잡아 치명할 각오를 하였다.

그래서 원님에게 하느님을 배반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선택한다고 결심을 분명히 밝혔다. 현장으로 가는 길에 조 화서를 바라보며 "우리는 오늘 천국에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하고 말하며 치명의 길을 과거시험과 비유하며 기뻐하였다. 그는 세 번을 내리치는 칼날에 참수 치명하였으며 나이 66세였다.

### 복자 손 선지 베드로

그는 충청도 임천 추성면 괴인골에서 태어났으며 어려서 부모를 따라 입교하였다. 그는 16세에 기해 박해에 치명하신 사스망 정 신부로부터 전교 회장으로 임명되어 치명할 때까지 회장직을 수행하였다. 박해의 소식을 듣자 곡식이 바람에 제 즐기에서 떨어져 나가듯이 천주께서 이번 박해에 나 같은 사람을 당신 광고에 걸우시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박해를 기다렸다. 그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애원과 설득에도 등요됨이 없이 오히려 호명하였다. 포졸들은 전교회장의 직분을 알고 더욱 심한 고문을 하여 팔이 모두 부러져 음식을 먹을 수 없었지만 평은 잃지 않았다. 처형장으로 가던 날 감옥의 한 교우에게 태연한 모습으로 웃을 벗어 주는 여유를 보여 주었으며, 형장에 도착하여서도 기도를 계속하였다. 그는 희광이의 칼이 어깨를 내리치자 죽기는 커녕 비 단칼에 내  
(3면에 계속)

가을맞이 관광  
(설악산·제주도)

**전 일 관광**

☎ 6-6666~8  
조(안토니오) 선

**칼라사진 45분 완성**

컴퓨터 시스템의  
현상 인화기 신설

**미영칼라현상소**

☎ 3651·9286  
전주시 중앙동 3가 30-1  
전병진(토마스모어)

□ 신장개업

**대 건 다 방**

개업일: 8월 28일  
전동 대건신협 지하  
☎ 6-4455  
교우 여러분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김 유리안나(춘형)

□ 마춤 · 대여 □

**신 부 의 집**

\*웨딩드레스·연주복·  
비디오촬영·페덱의상·  
신부부케·야의촬영  
관동도로 서울신탁은행 앞  
전화 ☎ 6951  
정인기(누저노)



이 땅에 빛을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전주교구 신앙대회

때 : 1983년 9월 25일

곳 : 전주 실내체육관

기념바자회 : 25일~29일 (26일부터는 가톨릭 센터에서)

□ 전주교구 봉헌 기도문

이 땅에 오묘한 섭리로 복음의 빛을 비추시고  
 순교자들의 피로 교회의 기초를 튼튼하게 놓아주신 천주여 찬미 받으소서.  
 우리는 이 고장의 수많은 순교 선열들의 열을 기리며,  
 특히 7위 복자와 동정부부 유 요한, 이 누갈다의 모범을 따라  
 우리 교구를 주께 봉헌하나이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선열들의 굳건한 믿음을 본받아  
 언제나 어디서나 구원의 빛 안에 살게 하시며  
 이 고장에 진리와 사랑을 전하는 사도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사회 안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는 자랑스러운 순교자들을 모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나이다.  
 오늘이 있기까지 주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간절히 비오니  
 죽기까지 주를 증거한 선열들의 공로를 어여bbe 보시어  
 더욱 풍성한 은혜를 이 고장에 내리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데 진실 전력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전주교 전주교구장 박 정일 주교 감준)

(2면에서 계속) 목을 자르지 못하느냐고 꾸짖으며 하늘을 보고 예수 마리아를 부르며 참수 치명하니 나이는 47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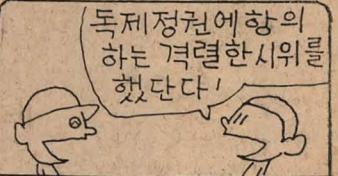
복자 한 요셉(베드로) 원서

그는 1828년 충청도 진잠에서 태어났으며 그곳에서 전교회장을 하였었는데 병인박해 때는 대성동 신리골에 거주하다가 체포되었다. 그는 평소 치명할 것을 염원하며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였다. 그는 손 선지, 정 문호와 체포되어 혹심한 고문보다 더 심한 괴로움을 당하였다. 그것은 자기 때문에 자살을 기도하는 가족의 행동에서 당하는 번민이었지만 그럴수록 더욱 용력을 나타내었다. 그의 아버지는 외교인이기 때문에 백방으로 아들의 구명운동을 하였지만 치명의 다짐을 꺾을 수 없었다. 그는 39세를 일기로 희광이의 첫 칼에 참수되었다.

□ 테클라 모임 성소자 피정

수도생활에 관심이 있는 젊은 여성들을 위한 피정  
 때 : 10월 8일 오후 5시-10월 9일 오후 5시 (1박 2일) 장소 : 가톨릭 센터(교육관)  
 회비 : 3천원 신청 : 성바오로 서원(전화 33398)  
 지침물 : 미사포, 복주, 공동체 성가집, 신구약 성서 합본  
 주최 : 성바오로 여자 수도회

요심이(529) 김병오



종업원 채용공고

1. 가톨릭 센터 구내식당, 다방 각 0명
  2. 25세미만 미혼 여성(신자)
  3. 9월 28일 마감(중졸 이상)
  4. 이력서 1통, 사진 1매
  5. 연락처 : 센터 관리과 ☎ 0041~3
- 재단법인 전주교구 유지재단

각종 수입약품 완비

(간장, 빈혈, 영양제 등)  
 친절 상담 봉사  
 영가 판매 조제

군산 태광 약국

구시장 오거리 1800  
 이 루도비코(원식)  
 최 데레사(순정)

【SS】 FASHION 전주 특약점

버 킹 검 위크 엔드 로가디스 소사이어터

런 던 포 그 세계적인코트의명품

캘 린 저 주니어북

NEW MAN

주주시 중앙동 3가 삼화약국 옆 4451 주인 유 율리안나

□ 신장 개업

미스터 미용실 <남성 헤어디자이너>

송 (요아킴) 주현

전주시 고사동 2가1-21 (현대예식장 건물내)

전화 5289

• 혼수(회갑) 옷감 | 도  
 • 특수 파티복 \* 매  
 • 고급 침구류 | 상  
 • 각종 솜일체 |  
 • 커네티지 |

서울주단

☎ 0453 5095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김(안토니오) 박(베로니카)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200주년 기념 3차 교구 사목회의 일정 변경: 30일로(바자회 관계)오전 10시, 장소-가톨릭 센터
  2. 성령새신 봉사자 모임: 29일 오후 7시30분, 주제-은사문제 ㉔
  3. M. B. W 교육: 30일~10월 3일, 선착순 28명, 접수처-교육국
  4. 미혼 남·여를 위한 '가나 강좌' 개설 예정: 1차-10월, 2차-11월, 주관-교육국
  5. 제6차 레지오 마리아에(L.M) 간부연수회: 10월 3일 오전 9시30분~오후 5시, 장소-가톨릭 센터  
대상-레지오 마리아 간부, 회비-2,500원(1,500원 푸리아 지원)
  6. 방송안내-성가를 들으며: 성가와 한국천주교회사 소개(30일까지) 이리 기독교방송 저녁 10시10분~30분
- 축! 영명: 성 빈첸시오(27일)-이 병호 신부님, 성 미카엘·가브리엘·라파엘(29일)-박 정일 주교님·안 용기·김 중길·박 중상·범 영배·박 찬길·경 규봉 신부님

(중앙)

전화 ⑤1711~3  
 주임 신부 보좌 사도  
 신부 신부 김민  
 사도 회장 안길

1. 교황대사 방문: 26일, 오전 10시30분~11시30분
  2. 초청강연회: 주제-해방신학, 강사-함세웅 신부  
장소-중앙성당, 일시-27일 오후 8시
  3. 성지순례: 28일 오전 9시 출발  
장소-고산·여산·화산, 회비-4천원
  4. 프란치스코 형제회 1일피정: 10월 3일 9시 등록  
참가비-중신서약자(3,500원)  
유기 및 입회자(1,500원)  
일반 형제자매(1,000원)  
준비물-기도서·성가집·도시락 지참
- 지난주 봉헌금: 820,150원

(서학동)

전화 ③2276번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한형수

1. 사도회 월례회: 10월 5일 오후 8시
  2. 자모회 모임: 10월 4일 오전 10시30분
  3. 유아세례: 매월 첫째주일 공식미사 전(9시30분)
  4. 예비자교리: 매주 공식미사 후-성인반  
매주 화요일 저녁미사 후-청년반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중·고생
  5. 차주전례: 독서-①이정빈 ②김한기
- 지난주 봉헌금: 306,060원 교무금: 222,000원

(노송동)

신부 ⑥0969 주임 신부 김용태  
 수·사 ③7032 보좌 신부 나춘재  
 사도 회장 이홍재

1. 축! 본당의 날 행사: 10월 2일 오전 9시30분  
중앙여고에서 주교님 미사 집전으로 있습니다.  
많은 신자 참석 바랍니다
  2. 영세식: 10월 1일 오후 3시  
대부모와 함께 오후 2시까지 성당으로  
영세자들을 위한 집중교리: 25일부터 매일 저녁 8시  
교육관
  3. 견진식: 10월 2일 10시, 중앙여고 교정에서  
견진자 모임-9월 26일 오후 8시 빠짐없이 참석바람
  4. 구역장 모임: 26일 오후 3시  
구역장, 부구역장은 꼭 참석 바람
- 지난주 봉헌금: 378,646원 교무금: 437,000원

(전동)

신부 ⑥6208 주임 신부 김병엽  
 사무 ③3222 보좌 신부 박찬길  
 수녀 ③8347 사도 회장 이종두

1. 축! 영명(박찬길 미카엘 신부): 축하식-10월 2일  
공식미사 후, 많은 기도 바랍니다
2. 글라라 형제회: 오후 1시30분
3. 유아세례: 다음주 학생미사 후
4. 성가정회: 9월30일, 이수산나씨 맥
5. 주일학교 성지순례: 10월 1일, 장소-천호공소·여산·화산, 참가비-어린이 500원
6. 주일학교 응변대회: 주제-순교복자에 대하여  
접수마감-10월 9일
7. 글로리아 성가대원 모집: 모집기간 10월 5일까지  
사무실
8. 차주전례  
아침미사: 해설-박중규, 독서-①김동연 ②최정석  
공식미사: 해설-이준영, 독서-①신일균 ②이영희  
저녁미사: 해설-김석란, 독서-①이훈 ②김현배

(덕진)

신부(3)2182 주임 신부 김봉희  
 전화 수녀(72)1222 보좌 신부 정양현  
 사무(72)6259 사도 회장 양상열

1. 오늘 모임: 진복회
2. 새 교우들의 탄생(영세):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3. 오늘은 「교구 신앙대회」의 날 오후 1시 시작  
본당에는 새벽미사만 있음
4. 사도회 상임위원회: 10월 8일 저녁미사 후로 연기함
5. 다음주 모임: 사도회 각 분과위원회
6. 26일은 한국 순교복자 대축일입니다  
모두 미사에 참석합니다. 새벽 6시, 저녁 7시
7. 미사시간 변경(오늘부터): 저녁 8시~7시로 변경함  
니다

(복자)

전화 ②5238번  
 주임 신부 권영균  
 사도 회장 조성호

- ※ 10월은 로사리오 성월(전교의 달)
1. 사도회: 오늘 저녁미사 후
  2. 첫철례 7: 10월 1일 저녁 7시30분  
첫철례 6: 10월 7일 저녁 7시30분
  3. 수녀원 신축헌금 아직 신입 안하신 분은 속히 신청  
바람
  4. 경노회: 26일 오전 10시, 61세 이상 중식 제공  
주관-사도회 봉사분과
  5. 봉헌금 마수 없도록 완납 바랍니다
  6. 성지개발 기념 부채대금 납부 바랍니다

(파티마)

신부 ②0915 주임 신부 김병필  
 수녀 ②4804 사도회장 황희상

1. 배른성지 순례: 26일 아침 7시30분 출발,  
도시락 지참
  2. 영세식: 10월 3일 오전 9시30분  
특별교리-영세예정자, 27일~29일 밤 8시
  3. 기사회: 10월 1일 오후 2시
  4. 사도회 월례회·푸리아 회합: 다음주
  5. 200주년 기념사업: 행운권, 부채 구입으로 도움을  
드립니다
- 지난주 봉헌금: 250,880원 교무금: 800,000원